

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TRADE FOCUS

2019년 24호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2019년 6월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강성은 연구원

유서경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 약]	i
I.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01
II. 미·중 제재품목의 교역 현황	05
III. 미·중 간 상호관세부과의 무역전환효과	16
IV. 미·중 간 非관세 이슈의 영향	20
V. 결론 및 시사점	22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02-6000-5185, bkmun@kita.net)

강성은 연구원(☎ 02-6000-5759, kangse0521@kita.net)

유서경 연구원(☎ 02-6000-5638, skyoo1080@kita.net)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대중 수출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미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환효과에 힘입어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20.5%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중국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5.9% 감소했다.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로 금년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은 20.5% 증가하여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금년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 점유율은 3.4%에서 4.1%로 0.7%p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9.2%에서 금년 1분기 6.2%로 큰 폭(-3.0%p)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8.5%에서 올해 1분기 8.2%로 소폭(-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 내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품목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 한국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유리·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생활용품, 기계류 등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산 점유율은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의 금년 1분기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제재품목 수입이 비제재품목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됐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은 수출경합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통상 분쟁은 중국 제조2025전략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수출관리규정을 근거로 화웨이를 우려거래자로 지정·공고(5.21)하고 5.16일부터 소급적용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투자·소비 둔화, 금융불안, 중국의 對ASEAN 수출증가에 따른 한국의 對ASEAN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할 시 수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본문

I.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1 미·중 간 관세 부과 현황

- 美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48.2%(2018년 기준 미국의 대중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2,715억 달러)에 추가 관세 부과
 - (1~2차) 2018.7.6일 340억 달러, 8.23일 160억 달러, 총 500억 달러 수입에 25% 관세 부과
 - (3차) 2018.9.24일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 (4차) 2019.5.10일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10%→25%)
-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입품 61.6%(2018년 기준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961억 달러)에 보복관세 부과
 - (1~2차) 2018.7.6일 340억 달러, 8.23일 160억 달러, 총 500억 달러 수입에 25% 관세 부과
 - (3차) 2018.9.24일 600억 달러 상당 수입에 5~10% 차등 관세 부과
 - (4차) 2019.5.13일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5~10%에서 5~25%로 인상한다고 발표(6월 1일 실시)

< 미↔중 관세부과 현황 >

	날짜	美 → 中 관세부과	中 → 美 관세부과
1차	'18.7.6	340억불(818개 품목, 25%p)	340억불(545개 품목, 25%p)
2차	'18.8.23	160억불(279개 품목, 25%p)	160억불(333개 품목, 25%p)
3차	'18.9.24	2,000억불(5,745개 품목, 10%p)	600억불(5,207개 품목, 5~10%p)
4차	'19.5.10~6.1	2,000억불(5,745개 품목, 10%p→25%p) * 5.10일 중국 출발 기준	600억불(5,207개 품목, 5~10%p→5~25%p) * 6.1일 실시
예정		3,000억불(3,805개 품목, 25%p) 관세 부과예고	-

■ [미국의 대중 제재 1~4차 품목] 대부분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

- * 1·2차 제재 품목 구성 :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 * 3·4차 제재 품목 구성 :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중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이 제재 품목의 절반(49.0%)을 차지(수입액 기준)

● 미국의 대중 제재품목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587억 달러로 자동차(32.1%), 기계류(23.1%), 석유제품(5.6%), 반도체(5.2%) 등이 큰 비중 차지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1~4차 제재품목 2,500억 달러 상당) >
(개, 억 달러)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6,842	2,715	(100.0)	587	(100.0)
기계류	625	579	(21.3)	136	(23.1)
전기·전자제품	361	405	(14.9)	40	(6.9)
생활용품	77	348	(12.8)	2	(0.3)
휴대폰 및 부품	2	245	(9.0)	4	(0.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511	222	(8.2)	45	(7.7)
자동차, 자동차부품	185	171	(6.3)	189	(32.1)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34	128	(4.7)	14	(2.5)
화학공업제품	1,279	83	(3.1)	23	(4.0)
비금속제품	167	77	(2.9)	8	(1.4)
목재 및 종이류	490	73	(2.7)	6	(1.1)
의료, 정밀광학기기	216	63	(2.3)	9	(1.6)
유리 및 도자제품	226	62	(2.3)	3	(0.5)
가전	74	58	(2.2)	13	(2.1)
반도체	17	47	(1.7)	30	(5.2)
섬유·의복·가족제품	917	42	(1.6)	10	(1.8)
농수산물	993	61	(2.3)	7	(1.2)
화장품	25	14	(0.5)	6	(1.0)
신발 및 모자류	28	14	(0.5)	0.1	(0.0)
석유제품	62	6	(0.2)	33	(5.6)
항공기 및 부품	16	6	(0.2)	7	(1.3)

주 :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 Trademap.org,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 [제재예정 품목] 미국이 대중국 수입제품의 잔여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재 및 자본재가 대부분 포함될 예정

* 제재예정 잔여품목 구성 : (소비재) 40% (자본재) 44% (중간재) 15%

- 지난 5.13일 미국이 발표한 25%p 관세부과예정 품목(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상당)은 기계류, 휴대폰, 섬유·의복·가죽제품, 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신발·모자, 가전 등이 제재 품목의 83.7%를 차지
- 미국의 대중 제재예정품목의 대한국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휴대폰(35.1%), 철강제품(22.8%), 전기·전자제품(14.5%), 가전(6.6%) 등이 79.0%를 차지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제재예정품목 3,000억 달러 상당) >
(개, 억 달러)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3,792	2,729	(100.0)	125	(100.0)
기계류	143	558	(20.4)	5	(4.3)
휴대폰 및 부품	5	483	(17.7)	44	(35.1)
섬유·의복·가죽제품	763	380	(14.0)	3	(2.2)
생활용품	89	308	(11.3)	4	(3.5)
전기·전자제품	96	240	(8.8)	18	(14.5)
신발 및 모자류	169	175	(6.4)	1	(0.8)
가전	58	138	(5.1)	8	(6.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89	107	(3.9)	3	(2.3)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73	60	(2.2)	28	(22.8)
잡품 및 수집품	110	38	(1.4)	2	(1.4)
목재 및 종이류	58	38	(1.4)	1	(0.8)
의료, 정밀광학기기	53	33	(1.2)	1	(0.8)
화학공업제품	160	31	(1.1)	0.4	(0.4)
귀금속	57	31	(1.1)	1	(0.6)
비금속제품	66	30	(1.1)	1	(0.1)
유리 및 도자제품	91	28	(1.0)	0.2	(0.2)
농수산물	1,131	19	(0.7)	2	(1.8)
자동차, 자동차부품	13	7	(0.3)	0.3	(0.3)
시계류	157	6	(0.2)	0.007	(0.0)
약기류	41	6	(0.2)	0.4	(0.3)
철도 및 부품	1	5	(0.2)	0.03	(0.0)

주 :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 Trademap.org,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3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 분석

■ 중국의 대미 제재 품목은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 의료·정밀기기, 기계류, 화학제품 순임

- * 1·2차 제재 품목 구성 :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 * 3·4차 제재 품목 구성 :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1,064억 달러로 화학제품(17.3%), 기계류(15.6%), 의료·정밀기기(13.4%) 등의 비중이 큼

< 중국의 대미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1~4차 제재품목 1,100억 달러 상당) >
(개, 억 달러)

	품목수	대미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6,085	961	(100.0)	1,064	(100.0)
농수산물	819	140	(14.6)	10	(0.9)
자동차, 자동차부품	297	119	(12.4)	11	(1.0)
의료, 정밀광학기기	215	105	(11.0)	143	(13.4)
기계류	692	98	(10.2)	166	(15.6)
화학공업제품	827	85	(8.9)	184	(17.3)
목재 및 종이류	265	81	(8.4)	5	(0.5)
전기, 전자제품	382	60	(6.3)	94	(8.8)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09	52	(5.4)	86	(8.1)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476	50	(5.2)	83	(7.8)
석유제품	65	37	(3.9)	111	(10.5)
귀금속	68	33	(3.4)	1	(0.1)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736	19	(2.0)	18	(1.7)
광물 및 토석류	86	15	(1.5)	3	(0.3)
유리 및 도자제품	170	14	(1.5)	23	(2.2)
화장품	43	13	(1.4)	29	(2.7)
반도체	10	8	(0.9)	21	(2.0)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34	7	(0.7)	41	(3.9)
비금속제품	181	7	(0.8)	7	(0.6)
생활용품	102	5	(0.5)	2	(0.2)
가전	77	4	(0.4)	22	(2.1)
신발 및 모자류	61	2	(0.2)	1	(0.1)
의료용품	12	2	(0.3)	0.03	(0.0)
항공기 및 부품	9	2	(0.2)	—	(0.0)
잡품 및 수집품	73	1	(0.1)	1	(0.1)

주 : 중국의 대미국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군은 제외
자료 : Trademap.org,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II. 미·중 제재품목의 교역 현황

1 G2와 주요국간 교역 현황

- 세계 GDP와 세계 무역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0%, 22.6%로 세계 경제에서 G2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큼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위상(2018) > (% , 억 달러)

	미국	중국	G2
세계 GDP 비중(GDP)	24.2% (204,941)	15.8% (134,074)	40.0% (339,014)
세계 무역 비중(무역액)	10.9% (42,784)	11.8% (46,230)	22.6% (89,014)

자료 : IMF, WTO, 미국무역통계, 중국무역통계

- 한국의 對G2 수출비중(38.9%)은 대만 다음으로 높아 G2간 무역 분쟁이 확대될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은 26.8%, 對美 수출비중은 12.1%를 기록

< 주요국별 G2 수출 비중 및 의존도(2018) >

		대만	일본	한국	인니	인도	독일
對 G2	수출 비중	40.6%	38.6%	38.9%	25.3%	21.1%	15.7%
	수출 의존도	23.2%	5.7%	14.5%	4.5%	2.5%	6.1%
對 中	수출 비중	28.8%	19.5%	26.8%	15.1%	5.1%	7.1%
	수출 의존도	16.4%	2.9%	10.0%	2.7%	0.6%	2.7%
對 美	수출 비중	11.8%	19.0%	12.1%	10.2%	16.0%	8.6%
	수출 의존도	6.7%	2.8%	4.5%	1.8%	1.9%	3.4%

주 : 1) 수출 비중 : 국가의 총 수출 대비 對G2 수출액
2) 수출 의존도 : 국가의 GDP 규모 대비 對G2 수출액
자료 : IMF, Trademap.org

-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

< 주요국의 對中 중간재 수출 현황(2018) > (억 달러, %)

	대만		한국		일본		독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 간 재	766	79.2	1,282	79.0	530	62.1	878	61.0

주 : 비중은 각국의 대중 총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
자료 : UN Comtrade, Trademap.org,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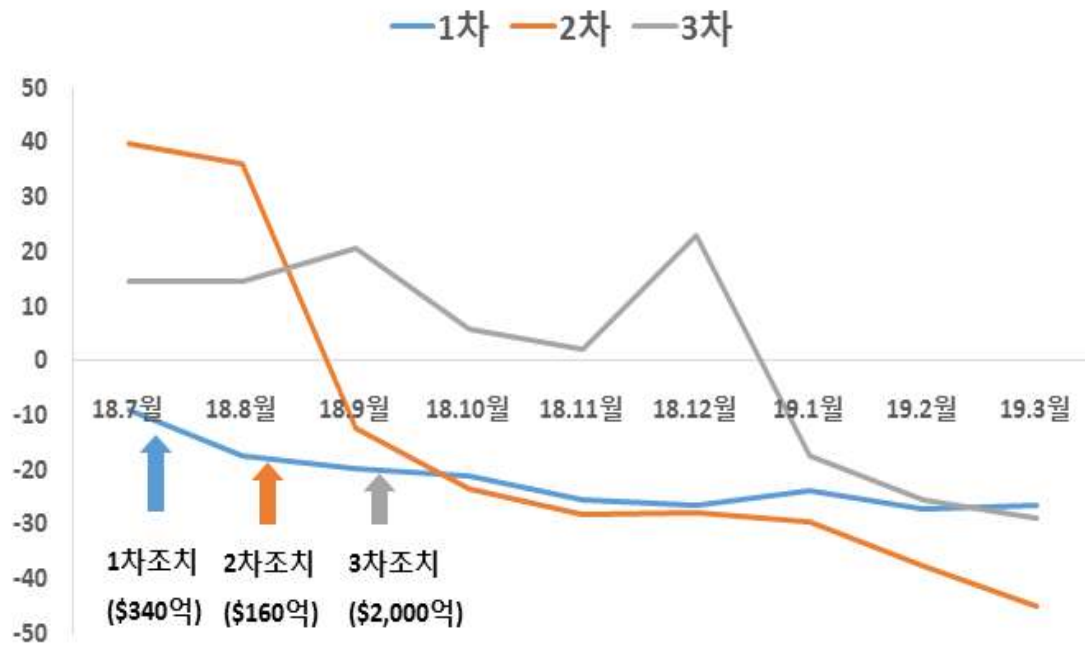
2

미국의 제재품목 수입 동향

-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의 對中 제재품목의 수입은 1~4개월의 시차를 두고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 1차 제재품목('18.7월)과 2차 제재품목('18.8월)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1개월 이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3차 제재품목('18.9월)은 금년 1월부터 크게 감소

< 미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증가율 추이 >

(전년 동기대비 %)



	2018						201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차 품목	-9.0	-17.5	-19.8	-21.1	-25.3	-26.6	-23.6	-27.0	-26.4
2차 품목	39.7	36.2	-12.4	-23.3	-28.2	-27.7	-29.4	-37.7	-45.1
3차 품목	14.6	14.7	20.5	5.9	2.2	23.0	-17.5	-25.4	-28.7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미국수입통계

-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금년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은 20.5% 증가
-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
 - *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 , '19.1분기) : (중간재) -13.1 (자본재) 8.4 (소비재) -5.7
-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은 증가

< 미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대중국·대한국 수입(2019년 1분기)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대세계		대중국		대한국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수입	6,158	(-0.03)	1,109	(-13.4)	205	(19.0)
비제재품목 합계	2,310	(4.5)	627	(-2.3)	49	(14.6)
제재품목 합계	3,848	(-2.6)	482	(-24.7)	156	(20.5)
자동차, 자동차부품	752	(3.2)	36	(-5.3)	51	(14.8)
기계류	694	(1.2)	92	(-38.5)	36	(33.7)
석유제품	475	(-13.7)	0.5	(-63.6)	10	(106.4)
전기, 전자제품	334	(-0.8)	74	(-18.7)	11	(10.5)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208	(1.4)	40	(-19.9)	12	(23.9)
화학공업제품	160	(1.1)	15	(-20.6)	5	(-18.4)
생활용품	132	(-4.5)	70	(-14.8)	0.5	(11.4)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131	(-3.7)	26	(-14.9)	4	(37.5)
의료, 정밀광학기기	123	(-1.4)	11	(-26.8)	2	(-2.0)
농수산물	215	(-0.1)	9	(-40.5)	2	(4.7)
반도체	102	(-4.1)	6	(-49.5)	7	(-1.7)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88	(-21.4)	38	(-30.8)	0.4	(-30.9)
항공기 및 부품	84	(14.7)	1	(9.8)	2	(23.0)
목재 및 종이류	81	(-18.0)	12	(-31.1)	2	(46.1)
비금속 제품	49	(0.0)	16	(-6.4)	2	(3.0)
귀금속	45	(-19.0)	0.08	(-74.5)	0.4	(-10.0)
유리 및 도자제품	45	(-1.2)	10	(-25.7)	1	(17.2)
가전	38	(-1.2)	11	(-19.0)	3	(23.4)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37	(-0.2)	7	(-25.8)	3	(31.3)
화장품	24	(-0.8)	2	(-20.7)	1	(16.4)
광물 및 토석류	13	(9.3)	0.4	(-18.6)	0.1	(4.1)
선박	7	(6.2)	0.2	(-17.8)	0.001	(-71.2)
신발 및 모자류	5	(-1.9)	3	(-16.4)	0.02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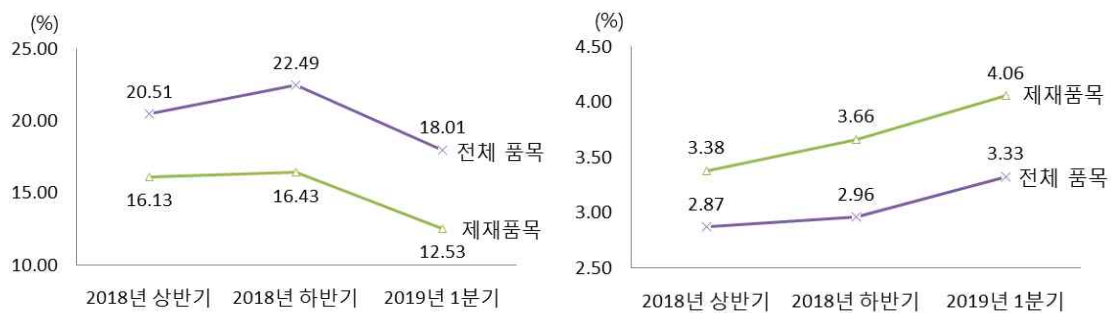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미국수입통계

■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금년 1분기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 상승세

●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금년 1분기 12.5%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 점유율은 3.4%에서 4.1%p 상승

*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한·중 점유율 추이('17→'18→'19.1Q, %)
: (중국) 16.21 → 16.28 → 12.53 (한국) 3.63 → 3.52 → 4.06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 >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미국수입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미국수입통계

● 품목별로는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 한국의 점유율 상승이 뚜렷

<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중국산 점유율 변화 >

(억 달러, %)

	대 한국 수입액 (2018)	한국산 점유율				중국산 점유율	
		'18.上 (A)	'18.下	'19.1Q (B)	증감 (B-A)	'19.1Q	증감 ('19.1Q -'18.上)
제재품목 전체	587	3.38	3.66	4.06	0.68	12.52	-3.61
가전	13	6.78	7.86	8.42	1.65	29.35	-7.38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10	6.50	6.60	7.95	1.45	18.94	-6.53
목재 및 종이류	6	1.35	1.64	2.42	1.07	14.44	-1.55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45	5.05	5.23	6.00	0.94	19.26	-5.25
반도체	30	6.36	7.44	7.29	0.93	6.17	-5.62
기계류	136	4.26	5.13	5.15	0.90	13.18	-8.13
석유제품	33	1.22	1.52	2.05	0.83	0.10	-0.15
자동차, 자동차부품	189	6.15	6.32	6.85	0.70	4.75	-0.69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14	2.38	2.73	3.06	0.68	19.96	-2.03
화장품	6	5.17	5.49	5.83	0.66	9.98	-2.40
전기, 전자제품	40	2.81	2.79	3.16	0.34	22.31	-4.97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미국수입통계

■ 국가별로는 금년 1분기 중 미국의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제재품목 수입이 비제재품목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

< 미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 동향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상반기	하반기	연간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대 중국	총수입	5,261 (9.3)	2,601 (8.6)	3,027 (5.6)	5,629 (7.0)	1,109 (-13.4)
	제재 품목	2,478 (18.5)	1,321 (11.4)	1,394 (7.9)	2,715 (9.6)	482 (-24.7)
	비제재(예정)	2,783 (2.2)	1,280 (5.8)	1,633 (3.7)	2,913 (4.6)	627 (-2.3)
대 한국	총수입	735 (2.2)	364 (-0.8)	399 (9.2)	762 (3.8)	205 (19.0)
	제재 품목	555 (56.4)	277 (-1.3)	311 (12.9)	587 (5.7)	156 (20.5)
	비제재(예정)	179 (-50.8)	87 (0.8)	88 (-2.1)	175 (-2.2)	49 (14.6)
대 일본	총수입	1,398 (3.5)	720 (5.2)	741 (3.7)	1,461 (4.5)	369 (2.9)
	제재 품목	1,190 (66.0)	612 (5.2)	623 (2.5)	1,235 (3.8)	314 (3.2)
	비제재(예정)	208 (-67.2)	108 (5.2)	118 (10.5)	225 (8.2)	55 (1.7)
대 독일	총수입	1,200 (3.2)	636 (9.9)	648 (4.0)	1,284 (6.9)	316 (1.2)
	제재 품목	876 (48.4)	446 (6.9)	467 (1.8)	913 (4.2)	218 (0.8)
	비제재(예정)	324 (-43.4)	189 (17.8)	182 (10.2)	371 (13.9)	98 (2.1)
대 베트남	총수입	484 (10.7)	238 (2.2)	275 (9.4)	513 (6.0)	166 (39.6)
	제재 품목	188 (16.5)	90 (1.7)	108 (8.4)	198 (5.2)	55 (28.3)
	비제재(예정)	296 (7.3)	148 (2.5)	168 (10.1)	315 (6.4)	110 (46.0)
대 대만	총수입	439 (8.1)	224 (5.9)	249 (8.9)	473 (7.6)	131 (21.0)
	제재 품목	305 (11.3)	158 (6.4)	178 (13.8)	336 (10.2)	98 (29.1)
	비제재(예정)	135 (1.8)	66 (4.9)	71 (-1.7)	137 (1.4)	32 (1.7)
대 멕시코	총수입	3,172 (6.9)	1,709 (9.2)	1,787 (11.4)	3,496 (10.3)	874 (5.4)
	제재 품목	2,472 (24.0)	1,354 (11.0)	1,424 (13.8)	2,778 (12.4)	696 (5.6)
	비제재(예정)	700 (-28.0)	355 (2.7)	363 (3.0)	718 (2.9)	179 (4.4)
대 캐나다	총수입	3,065 (7.8)	1,636 (6.2)	1,622 (5.9)	3,258 (6.3)	762 (-3.3)
	제재 품목	2,454 (43.6)	1,315 (6.7)	1,285 (5.3)	2,600 (6.0)	602 (-5.2)
	비제재(예정)	611 (-46.1)	321 (4.5)	336 (8.3)	658 (7.7)	160 (4.8)
대 세계	총수입	24,085 (7.0)	12,683 (8.6)	13,460 (8.4)	26,143 (8.5)	6,158 (0.0)
	제재 품목	15,290 (28.3)	8,190 (9.3)	8,487 (8.9)	16,676 (9.1)	3,848 (-2.6)
	비제재(예정)	8,795 (-16.9)	4,493 (7.3)	4,973 (7.7)	9,467 (7.6)	2,310 (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미국수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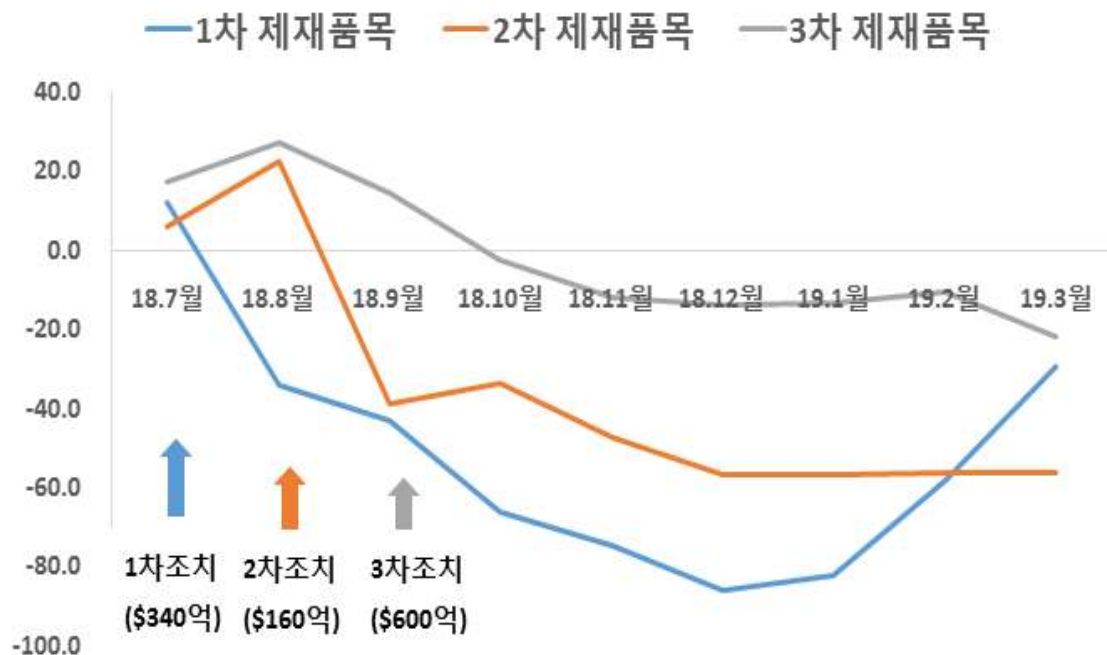
3

중국의 제재품목 수입 동향

- 중국의 對美 관세 부과 영향으로 중국의 對美 제재품목의 수입은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 1차 제재품목('18.7월), 2차 제재품목('18.8월), 3차 제재품목('18.9월)에 대한 중국의 대미국 수입은 추가 관세부과 1개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중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대미국 수입증가율 추이 >

(전년 동기대비 %)



	2018						201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차 품목	3.1	-35.9	-44.1	-64.2	-71.6	-80.9	-78.9	-57.7	-31.5
2차 품목	5.7	22.3	-38.7	-33.7	-47.1	-56.7	-56.5	-56.2	-56.4
3차 품목	17.4	27.1	14.4	-2.7	-12.0	-13.8	-13.2	-10.5	-2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중국수입통계

■ 중국의 對美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금년 1분기 중국의 대미국 제재품목 수입은 두 자릿수(-36.9%) 감소

●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반사이익보다는 중국의 수입 감소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금년 1분기에 5.9% 감소

● 석유제품, 전기·전자제품, 의료·정밀기기 등에서 중국의 대미국·대한국 수입이 모두 감소

< 중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대미국·대한국 수입(2019년 1분기)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대세계		대미국		대한국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수입	4,732	(-4.8)	287	(-31.5)	410	(-13.3)
비제재품목 합계	1,917	(-10.5)	114	(-21.2)	179	(-21.3)
제재품목 합계	2,815	(-0.5)	173	(-36.9)	231	(-5.9)
기계류	340	(-3.5)	20	(-11.6)	37	(-0.1)
석유제품	271	(-6.4)	2	(-81.2)	22	(-16.3)
전기, 전자제품	245	(-8.7)	13	(-8.6)	19	(-14.5)
화학공업제품	242	(-2.3)	17	(-22.2)	43	(-0.9)
의료, 정밀광학기기	190	(-6.3)	22	(-7.6)	31	(-4.0)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184	(-16.8)	9	(-37.0)	19	(3.4)
광물 및 토석류	158	(4.2)	1	(-79.7)	1	(-25.5)
귀금속	158	(354.5)	1	(-18.2)	2	(861.1)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154	(-5.6)	9	(-33.4)	19	(-6.7)
농수산물	267	(4.8)	21	(-71.4)	2	(23.3)
자동차, 자동차부품	141	(-13.9)	27	(-17.1)	2	(-24.3)
목재 및 종이류	102	(-15.5)	13	(-37.1)	1	(-10.1)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82	(-27.5)	1	(-18.7)	8	(-12.9)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73	(6.1)	4	(-43.4)	4	(-8.4)
반도체	61	(-7.5)	2	(5.5)	4	(-27.8)
화장품	34	(44.8)	4	(50.2)	7	(34.6)
가전	25	(-29.8)	1	(0.6)	2	(-62.2)
유리 및 도자제품	25	(-1.0)	3	(-3.7)	6	(4.8)
비금속 제품	16	(-7.0)	2	(2.2)	1	(-22.7)
신발 및 모자류	14	(20.9)	1	(131.4)	0.2	(11.8)
생활용품	13	(2.9)	1	(-3.9)	0.4	(19.3)
의료용품	3	(3.8)	1	(-7.5)	0.1	(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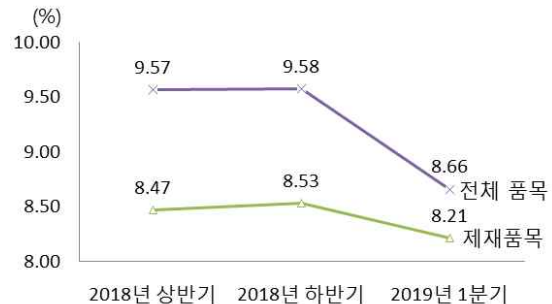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중국수입통계

■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

●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미국산과 한국산 점유율은 각각 작년 상반기 9.2%, 8.5%에서 금년 1분기 6.2%(-3.0%p), 8.2%(-0.3%p)로 하락

*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한·중 점유율 추이('17→'18→'19.1Q, %)
: (미국) 9.39 → 7.68 → 6.15 (한국) 9.15 → 8.50 → 8.21

<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 >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중국수입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중국수입통계

● 품목별로는 유리·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생활용품, 기계류 등에서 미국산 점유율 하락, 한국산 점유율 상승

<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미국산 점유율 변화 >

(억 달러, %)

	대한국 수입액 (2018)	한국산 점유율				미국산 점유율	
		'18.上 (A)	'18.下	'19.1Q (B)	증감 (B-A)	'19.1Q	증감 ('19.1Q -'18.上)
제재품목 전체	1,064	8.48	8.53	8.20	-0.28	6.14	-3.00
유리 및 도자제품	23	20.79	22.34	22.32	1.53	12.19	-0.79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83	8.80	10.04	10.32	1.52	4.73	-1.62
귀금속	1	0.16	0.29	0.96	0.80	0.74	-9.38
의료, 정밀광학기기	143	15.59	17.07	16.06	0.47	11.49	-0.73
화학공업제품	184	17.44	18.35	17.90	0.47	7.03	-1.85
생활용품	2	2.88	3.10	3.10	0.22	7.86	-0.49
기계류	166	10.74	10.99	10.88	0.14	5.80	-0.53
농수산물	10	0.72	1.01	0.77	0.05	7.73	-11.87
전기, 전자제품	94	8.06	7.81	7.92	-0.13	5.22	-0.15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41	10.42	7.06	10.18	-0.24	1.58	-0.0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86	12.67	12.60	12.33	-0.35	5.69	-2.34
석유제품	111	10.76	9.84	8.06	-2.69	0.85	-4.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미국수입통계

■ 금년 1분기 중 중국의 한국, 베트남 등에 대한 제재품목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비제재품목보다 선전하면서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

< 중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 동향 : 수입액 감소 국가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상반기	하반기	연간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대미국	총수입	1,544 (14.3)	844 (11.4)	716 (-9.4)	1,560 (1.0)	287 (-31.5)
	제재 품목	1,014 (11.2)	553 (8.3)	409 (-18.8)	961 (-5.2)	173 (-36.9)
	비제재 품목	531 (20.8)	291 (17.8)	307 (7.0)	599 (12.8)	114 (-21.2)
대한국	총수입	1,776 (11.7)	989 (22.3)	1,056 (9.3)	2,046 (15.2)	410 (-13.3)
	제재 품목	988 (5.8)	512 (9.1)	552 (6.4)	1,064 (7.7)	231 (-5.9)
	비제재 품목	787 (20.0)	477 (40.5)	505 (12.8)	981 (24.7)	179 (-21.3)
대일본	총수입	1,658 (13.8)	871 (13.2)	933 (5.4)	1,804 (8.8)	389 (-5.7)
	제재 품목	1,238 (16.1)	638 (11.1)	681 (2.7)	1,320 (6.6)	285 (-6.7)
	비제재 품목	420 (7.6)	232 (19.4)	252 (13.5)	484 (15.4)	104 (-2.9)
대독일	총수입	969 (12.6)	514 (15.1)	549 (4.9)	1,063 (9.6)	249 (-1.3)
	제재 품목	715 (12.8)	391 (18.4)	413 (7.2)	804 (12.4)	184 (-6.0)
	비제재 품목	254 (12.1)	123 (5.8)	135 (-1.5)	259 (1.9)	65 (15.1)
대베트남	총수입	504 (35.5)	269 (37.2)	372 (20.9)	641 (27.2)	101 (-28.9)
	제재 품목	322 (65.1)	175 (50.7)	265 (28.8)	440 (36.7)	78 (-20.2)
	비제재 품목	182 (3.0)	94 (17.6)	107 (5.0)	201 (10.5)	24 (-47.5)
대대만	총수입	1,560 (12.3)	847 (25.5)	926 (6.1)	1,773 (13.7)	380 (-5.4)
	제재 품목	666 (11.5)	346 (11.6)	366 (2.6)	712 (6.8)	151 (-6.6)
	비제재 품목	894 (13.0)	502 (37.2)	560 (8.5)	1,062 (18.9)	228 (-4.6)
대세계	총수입	18,438 (16.1)	10,330 (19.8)	11,020 (12.6)	21,350 (15.8)	4,732 (-4.8)
	제재 품목	10,797 (16.3)	6,043 (20.2)	6,471 (12.1)	12,514 (15.9)	2,815 (-0.5)
	비제재 품목	7,641 (15.8)	4,286 (19.2)	4,549 (13.3)	8,836 (15.6)	1,917 (-1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중국수입통계

-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에 대한 제재품목 수입은 증가

< 중국의 제재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 동향 : 수입액 증가 국가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2017년 금액(증가율)	2018년			2019년 1~3월 금액(증가율)
			상반기	하반기	연간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대 호주	총수입	950 (34.0)	521 (8.4)	530 (13.8)	1,051 (10.6)	269 (5.4)
	제재 품목	344 (43.9)	242 (55.6)	279 (48.3)	521 (51.6)	133 (34.0)
	비제재 품목	606 (29.0)	279 (-14.2)	250 (-9.7)	529 (-12.7)	137 (-12.7)
대 브라질	총수입	589 (28.4)	347 (20.1)	425 (43.5)	771 (31.1)	177 (25.8)
	제재 품목	310 (19.8)	180 (22.0)	238 (46.5)	419 (34.8)	77 (33.7)
	비제재 품목	278 (39.5)	167 (18.1)	186 (39.8)	353 (26.9)	101 (20.3)
대 말레이 시아	총수입	544 (10.5)	302 (19.1)	332 (15.8)	633 (16.3)	151 (6.0)
	제재 품목	240 (21.4)	134 (17.4)	156 (23.7)	290 (20.7)	69 (8.2)
	비제재 품목	304 (3.1)	168 (20.5)	176 (9.6)	344 (12.9)	82 (4.3)
대 캐나다	총수입	204 (11.4)	135 (29.8)	149 (49.4)	284 (38.8)	76 (26.9)
	제재 품목	149 (26.3)	101 (36.0)	117 (56.1)	218 (46.1)	61 (47.7)
	비제재 품목	55 (-15.7)	34 (14.4)	32 (28.8)	65 (19.0)	15 (-18.5)
대 스위스	총수입	330 (-17.3)	232 (38.6)	155 (-4.7)	387 (17.2)	67 (-44.1)
	제재 품목	71 (13.1)	125 (281.9)	139 (267.3)	264 (274.1)	60 (204.4)
	비제재 품목	260 (-23.0)	107 (-20.3)	16 (-87.4)	123 (-52.6)	7 (-93.4)
대 러시아	총수입	414 (28.3)	267 (30.9)	322 (53.6)	589 (42.3)	134 (4.9)
	제재 품목	157 (45.1)	91 (18.0)	102 (27.9)	194 (23.1)	50 (16.5)
	비제재 품목	257 (19.8)	175 (38.7)	220 (69.5)	395 (54.1)	84 (-1.0)
대 멕시코	총수입	118 (14.3)	63 (14.8)	77 (23.9)	141 (19.1)	33 (5.8)
	제재 품목	77 (17.3)	46 (24.0)	55 (37.2)	101 (30.8)	25 (12.8)
	비제재 품목	41 (9.2)	17 (-3.9)	22 (0.1)	40 (-3.0)	8 (-10.7)
대 홍콩	총수입	73 (-56.2)	37 (7.9)	49 (21.8)	86 (17.0)	23 (40.7)
	제재 품목	54 (4.1)	28 (6.8)	43 (53.2)	71 (30.9)	20 (93.5)
	비제재 품목	19 (-83.7)	9 (11.3)	5 (-54.4)	14 (-23.3)	2 (-58.2)

주 : 수입대상국은 순서는 중국의 제재품목 수입액이 큰 순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중국수입통계

●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석유제품, 귀금속 등을 중심으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수입상대국에서 반사이익을 봄

- (농수산물)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멕시코 등
- (석유제품)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등
- (귀금속)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홍콩 등
- (화장품) 호주, 캐나다, 스위스, 홍콩 등
- (기계류) 캐나다, 멕시코 등
- (화학공업제품·자동차) 멕시코 등

< 중국의 제제품목 수입증가 국가에 대한 품목별 수입(2019년 1분기) >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멕시코		홍콩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농수산물	1,208	14.3	5,202	52.1	222	14.7	1,983	105.5	72	133.1	759	11.0	156	29.9	67	21.9
석유제품	5,841	26.5	3	99.3	1,811	23.1	215	101.6	1	-41.8	1,474	58.4	86	49.9	20	-14.0
화학공업제품	112	10.3	87	-0.7	603	-7.6	519	-0.4	152	-22.8	285	-10.6	34	29.2	44	16.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107	-21.5	143	-34.3	606	11.2	170	26.3	28	-1.0	99	-7.2	75	-8.2	153	35.0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775	25.7	434	648.3	46	29.9	23	229.4	20	1.3	1	-37.3	23	-9.2	24	9.6
철강 및 비철 금속 제품	580	-44.4	185	-21.7	463	217.3	158	-29.2	42	-6.1	641	42.0	158	-19.6	271	-33.4
생활용품	5	-1.6	0.4	-89.0	24	-4.4	24	36.4	22	111.9	4	86.7	12	-32.2	3	114.7
화장품	51	58.9	4	-27.3	1	26.2	48	111.8	65	99.2	1	1.8	3	160.9	30	64.5
가전	0.5	-77.7	1	53.8	27	-20.2	8	-5.6	3	6.8	0	-75.5	9	5.5	42	-23.3
기계류	30	4.5	28	0.7	874	-5.7	142	11.3	461	-5.5	21	13.8	151	34.6	23	9.9
휴대폰	33	-44.9	0.1	39.6	173	-6.3	16	130.3	8	-35.7	1	-29.8	78	-32.7	15	-81.0
반도체	2	-51.8	0.2	20.8	633	-6.9	2	127.7	13	-5.9	1	-11.3	47	2.8	7	-50.5
전기, 전자제품	21	-5.1	11	-31.4	940	-2.8	92	4.6	219	-4.0	15	11.1	408	17.1	41	2.8
자동차, 자동차부품	1	-54.2	2	-51.3	20	-45.5	46	-68.4	4	-46.3	0.3	-66.5	212	45.4	0.5	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29	-12.9	5	-18.0	274	4.2	109	8.9	266	-0.2	29	-13.7	360	23.7	13	-23.5
광물, 토석류	1,690	-5.0	465	35.6	79	-14.1	365	6.9	0	-71.4	214	-18.9	628	-0.4	0.5	224.8
목재, 종이류	292	-11.2	1,054	-17.4	39	-22.0	1,150	-8.2	12	-13.3	1,269	-8.6	2	-65.9	81	12.8
신발, 모자류	2	970.5	7	16.0	0	-29.6	1	106.5	1	23.3	0.04	2,100.0	0.1	213.9	4	67.1
유리, 도자제품	3	-3.1	4	-19.3	31	-16.7	3	18.6	20	12.6	3	6.3	9	169.9	7	-32.1
귀금속	2,474	22,397.8	10	120.5	3	-8.7	946	59,310.6	4,172	4974.5	114	125.1	0	-64.8	1,183	1987.3
비금속 제품	1	-69.1	7	64.1	9	-11.1	15	-4.0	24	4.4	16	68.7	9	-15.2	4	20.6
잡품, 수집품	0.4	46.3	0.5	-27.7	9	-14.9	7	-15.0	2	-37.3	0.3	754.8	0.4	-47.2	8	36.8
제제품목 전체	13,256	34.0	7,654	33.7	6,893	8.2	6,066	47.7	6,047	204.4	4,987	16.5	2,473	12.8	2,046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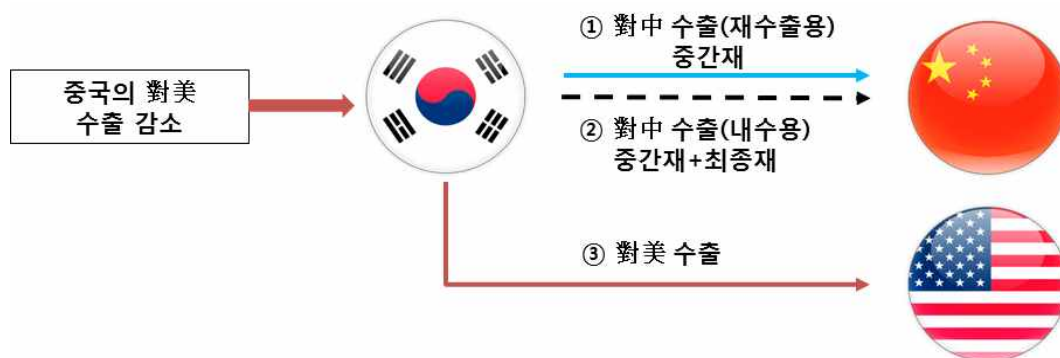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중국수입통계

Ⅲ. 미·중 간 상호관세부과의 무역전환효과

[참고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예상 파급경로]

미·중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 미국의 對中 수출 감소
→ 한국의 對中·對美 수출 감소 효과 + 무역전환효과

- ① 직접효과 :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 對中 및 여타국 경유 중간재 수출(재수출용) 감소
- ② 간접효과 : 중국의 수출부진에 따른 중국 성장둔화
→ 對中 수출(내수용 최종재·중간재) 감소
- ③ 반사이익 : 미국의 對中 수입 감소(한국산으로 대체)
→ 중국과 수출경합 높은 한국제품의 반사이익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예상 파급경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파악

1

미국시장 무역전환효과(반사이익)

- 미국의 대중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對中 수입 감소분 중 일부는 미국 국내산으로 대체되고 나머지는 중국 이외 수입국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반사이익 발생
- 미국의 對中 제재품목의 총수입 중 중국산과 한국산 비중은 각각 16.3%와 3.5%(제재 예정품목까지 포함시 중국산 23.5%, 한국산 3.1%)
- 對中 제재품목의 대한국 수입은 587억 달러로 대한국 총수입의 77.0% 차지

< 미국의 對中 제재품목의 수입 규모 및 의존도(2018) >

		(억 달러, %)
대세계	총수입액	26,143
	제재 품목 수입액(미국 총수입 대비 비중%)	16,676(63.8)
	제재+예정 품목 수입액(미국 총수입 대비 비중%)	23,188(88.7)
대중국	총수입액	5,629
	제재 품목 수입액[미국 제재품목 총수입 중 비중%]	2,715[16.3]
	제재+예정 품목 수입액[미국 제재품목 총수입 중 비중%]	5,444[23.5]
대한국	총수입액	762
	제재 품목 수입액[미국 제재품목 총수입 중 비중%]	587[3.5]
	제재+예정 품목 수입액[미국 제재품목 총수입 중 비중%]	712[3.1]

자료 : 미국수입통계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연구원 계산

- 품목별로는 대중 무역제재 대상품목 중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고무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
- 이들 품목들은 한·중 간 수출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산에서 한국산으로 수입 전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무역제재+예정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내 한·중 점유율(2018) >

(억 달러, 비중 %)

	한·중 경합도	미국 수입액 (제재+예정품목)	중국산		한국산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자동차, 자동차부품	0.284	3,061	178	5.8	189	6.2
기계류	0.258	3,657	1,137	31.1	141	3.9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0.288	1,068	329	30.8	48	4.5
전기, 전자제품	0.407	1,843	645	35.0	59	3.2
석유제품	0.429	2,393	8	0.3	33	1.4
반도체	0.446	438	47	10.7	30	6.9
화학공업제품	0.175	740	114	15.5	24	3.2
철강·비철금속 제품	0.230	1,125	188	16.7	43	3.8
가전	0.306	478	196	41.1	21	4.3
섬유, 의복, 가죽제품	0.183	1,193	423	35.4	13	1.1
의료, 정밀광학기기	0.476	613	95	15.6	10	1.7
비금속 제품	0.282	267	108	40.3	9	3.5
항공기 및 부품	0.870	318	6	1.8	7	2.3
화장품	0.465	149	16	11.0	6	3.8
목재 및 종이류	0.190	485	111	22.9	7	1.5
농수산물	0.182	1,623	80	5.0	9	0.6
휴대폰	0.714	1,112	729	65.5	47	4.3
유리 및 도자제품	0.230	248	90	36.4	3	1.3
생활용품	0.257	1,055	656	62.2	6	0.6
광물 및 토석류	0.485	57	3	6.2	1	1.0
귀금속	0.352	608	32	5.2	2	0.3
제재+예정품목 전체	0.268	23,188	5,444	23.5	712	3.1

자료 : Trademap 미국수입통계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연구원 계산

2

중국시장 무역전환효과(반사이익)

- 중국의 對美 수입 감소분 중 일부는 중국 국내산으로 대체되고 나머지는 미국 이외 수입국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반사이익 발생
-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의 對美 수입규모는 2018년 기준 961억 달러로 중국의 對美 총수입의 61.6%를 차지
- 對美 제재품목의 총수입 중 미국산과 한국산 비중은 각각 7.7%와 8.5%

< 중국의 對美제재품목의 수입 규모 및 의존도(2018) >

(억 달러, %)

대 세계	총수입액	21,350
	제재품목 수입액(중국 총수입 대비 비중%)	12,514(58.6)
대 미국	총수입액	1,560
	제재품목 수입액(대미국 총수입 중 비중%)	961(61.6)
	[중국 제재품목 총수입 중 비중%]	[7.7]
대 한국	총수입액	2,046
	제재품목 수입액(대미국 총수입 중 비중%)	1,064(52.0)
	[중국 제재품목 총수입 중 비중%]	[8.5]

자료 : 중국수입통계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연구원 계산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이 對中 수출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
- 이들 품목들은 한·미 간 수출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중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수입 전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추가관세부과 품목의 중국수입시장 내 한·미 점유율(2018) >

(억 달러, 비중 %)

	한·미 경합도	중국 수입액 (제재품목 대상)	미국산		한국산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화학공업제품	0.239	1,026	85	8.3	184	17.9
기계류	0.394	1,526	98	6.4	166	10.9
의료, 정밀광학기기	0.187	874	105	12.1	143	16.4
석유제품	0.192	1,083	37	3.4	111	10.3
전기, 전자제품	0.458	1,183	60	5.1	94	7.9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0.405	684	52	7.5	86	12.6
철강·비철금속 제품	0.232	886	50	5.6	83	9.4
휴대폰	0.216	489	7	1.4	41	8.5
화장품	0.718	124	13	10.8	29	23.1
유리 및 도자제품	0.484	108	14	13.1	23	21.6
가전	0.190	150	4	2.6	22	14.9
반도체	0.593	285	8	2.9	21	7.4
섬유, 의복, 가죽제품	0.210	302	19	6.2	18	6.0
자동차, 자동차부품	0.113	667	119	17.9	11	1.7
농수산물	0.107	1,110	140	12.6	10	0.9
비금속 제품	0.381	70	7	10.4	7	9.5
목재 및 종이류	0.293	506	81	16.0	5	1.0
제재품목 전체	0.241	12,514	961	7.7	1,064	8.5

자료 : Trademap 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연구원 계산

IV. 미·중 간 非관세 이슈의 영향

①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 소비·투자 위축

■ 미·중 무역분쟁이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 위축을 유발하여 세계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긴축*, 기업 투자 위축, 실질소비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기업 주가 하락 → 기업투자 위축 및 가계소비 부진 → 성장률 둔화

** 관세부과 품목의 인플레이션 상승 →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증가 → 투자·소비심리 위축

● 글로벌 공급망 타격 우려로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투자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지난 2년간 호황기에서 글로벌 무역긴장 고조로 인해 작년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

*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2020년 세계 GDP가 4,500억 달러(0.5%p) 감소 예상(6/5)

② 미국의 화웨이 제재(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영향

■ 화웨이는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 통신장비 기업으로 전세계 170여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통신장비, 휴대전화에서는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

● 화웨이는 금년 1분기 스마트폰 5,840만대를 판매해 세계시장 점유율 15.7%로 1위인 삼성전자(19.2%)에 이어 2위를 기록. 애플은 11.9%로 3위

● 통신장비시장에서는 가격 대비 높은 성능(가성비)을 앞세워 화웨이는 30% 내외를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세계 1위를 기록해 옴

■ 화웨이는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양대 사업인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됨

*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수출관리규정을 근거로 화웨이를 우려했던 자로 지정·공고(5.21)하고 5.16일부터 소급적용

* ①미국기업의 對화웨이 부품 공급 중단 ②제3국(미국산 부품 사용)의 對화웨이 부품 공급 중단 ③미국기업의 對화웨이 소프트웨어 공급 중단

- 현재 구글,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등 미국 IT 기업들이 화웨이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대만과 같은 미국의 우방들이 동참
 - 화웨이는 미국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까지 3대 클라우드 시장 대표 업체와의 거래가 끊기게 됨
 - 영국의 ARM(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회사)는 화웨이에게 더 이상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
 - 4G 사업을 함께하던 소프트뱅크는 5G 사업에 있어서 화웨이의 제품을 쓸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화웨이를 배제
 - 대만의 통신사들(중화텔레콤과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아시아퍼시픽 텔레콤, 타이완스타텔레콤 등 5개사)은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화웨이는 대만에서 8~9%의 점유율 보유)
- 이로 인해 화웨이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으로서는 기회요인이자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됨
-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합계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37%로 화웨이(28%)를 제치고 1위를 차지

③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시 영향

- 미국 희토류(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0%에 달해 중국이 미·중 분쟁에서 희토류를 협상카드로 사용 가능
- 중국은 원가 경쟁력과 환경오염(채굴·정제 과정에서 발생)에 대한 낮은 저항을 바탕으로 전세계 희토류 필요량의 2배에 달하는 생산능력 보유
 - *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중단 카드로 일본을 압박
-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을 걸면 단기간에 미국과 한국의 첨단산업에 다소의 충격이 불가피(2018년 중국의 세계 희토류 정련제품 생산 점유율 86%)
-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 비축분과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희토류 생산공장 설립과 안정화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응 가능)
 - * 지난 5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화학회사 블루라인과 호주의 광산회사 라이너스가 희토류 제련소를 미국 텍사스에 설립하기로 합의
- 지난해 한국의 희토류 수입액은 6,935만 달러로 중국산이 42.2% 차지

IV. 결론 및 시사점

-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미·중 간의 교역 감소와 양국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됨
- 우리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對미국 수출보다는 對중국 수출을 통해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됨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은 수출경합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발생
- 한국의 대미 수출 :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분 중 미국 국내산 대체를 제외한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2018년 4.2%, 중국제외)에 비례하는 수출 증가 기대
 - 품목별로는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 반사이익 기대
- 한국의 대중 수출 : 미국의 대중 수출 감소분 중 중국 국내산 대체분을 제외한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2018년 9.5%, 미국제외)에 비례하는 수출 증가 기대
 -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반사이익 기대
-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대중 수출은 상반된 모습을 보임
-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로 금년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은 20.5% 증가하여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이 작용
- 대미 수출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미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환효과에 힘입어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20.5% 증가

-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중국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5.9% 감소
- 이에 따라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금년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 점유율은 3.4%에서 4.1%로 0.7%p 상승세
- 한편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9.2%에서 금년 1분기 6.2%로 큰 폭(-3.0%p)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8.5%에서 올해 1분기 8.2%로 소폭(-0.3%p) 하락
- 품목별로는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 내 가전, 섬유,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품목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 한국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짐
-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유라·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생활용품, 기계류 등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산 점유율은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음
- 국가별로는 금년 1분기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제재품목 수입이 비제재품목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
-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됨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긴축, 기업 투자 위축, 실질소비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계량화 할 수 없지만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에 직면한 한국 수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
- 미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대, 지적권 보호 등을 요구, 미·중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경제패권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
- 다만, 철강 사례처럼 중국 수출 막았더니 한국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메시지가 미국 등 주변국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
- 또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EU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품목이 포함된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역 갈등의 해소가 시급
-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①무역 불균형 해소와 ②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데 있을 경우,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대응]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할 필요
- 美·中에 대한 수출의존 구조를 탈피해 신남방·신북방으로 시장 다변화
- 생산네트 조정(중국→아세안·한국 등) 지원 및 국내로의 리쇼어링 유도
- 범용성 있는 제품을 첨단 신기술 제품으로 수출품목 고도화
- 보호무역에 대한 통상외교 강화, 국제기구 등을 통해 자유무역 분위기 확산